

우리금융 조특법 주초 처리...광주은행 민영화 속도

여야 24일 본회의 상정 합의...JB금융 인수작업 탄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주 중 우리금융 계열 은행들의 분리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에 따라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하고 "기재위 소속 여야는 다음 주 초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우리

금융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산하 광주·경남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6500억 원대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특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에서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예정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조특법 개정안

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권 인사를 비방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 탓에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이에 앞서 기재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안 사장 사퇴 촉구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맞서면서 파열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여야는 안 사장에 대한 사퇴 촉구와 함께 임명제정권을 지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기재위 개회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야 간사 공동으로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진전이 없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안 사장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안 사장 문제로 질책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재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특법 이외의 안건

처리는 안 사장의 사퇴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여당 간사인 나성민 의원도 4월 말까지 책임지고 안 사장을 사퇴시키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 기재위가 22일째 조특법을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지방은행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를 비추는 각종 변수도 상존하고 있어 조특법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 책임 통감”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회장 광주시건설협회장 사의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회장이 광주시회 회장직 사퇴를 표명했다. 세종시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에 따른 것이다. 모아종합건설은 현재 소유 자산 매각에 나서며 빠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의로 철근 배근을 줄여 공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모아 측은 현재 700여 가

구의 아파트 계약자 중 해지를 원하는 계약자에게 계약금 전액과 계약금에 대한 이자(연 6%)를 반환하기로 했으며 지난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또 입주하는 계약자에게는 소유권 이전시 잔금(분양가의 30%)에 대한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취득세와 이사가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보상과 해남 등지에 있는 소유 자산(부동산) 매각에 따라 나서는 등 자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모아종합건설이 자금 마련에 나서면서 박 회장이 회사 밖 업무를 맡기 힘든 처지"라고 설명하며 "대의 활동 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모아종합건설은 지난 3월 세종시 중앙행정타운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공사비 문제로

아시아항공, 금호산업 주식 261만주 전량 처분

아시아항공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11일 아시아항공 공이 보유 중이던 금호산업 주식 261만798주(7.93%)를 전량 시간외매매

로 처분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아시아항공은 지난해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보유한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해 지분을 취득했다.

/연필뉴스



기아차 K4 콘셉트카 공개 기아자동차는 20일 중국 베이징 신국제전람센터에서 개막한 '2014 베이징모터쇼에서 중국 전락 K4 콘셉트카를 전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기아차 제공>

해외 직구 통관 시간 반나절로 줄어든다

(직접 구매)
관세청 규제 142개 완화

100달러 이하짜리 물품의 통관이 한층 빨라진다. 해외 직구구매의 간편 통관 절차도 모든 업체에 적용되는 등 세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어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원나 신발처럼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된다. 또 입국할 때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현행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직구구매(직구)의 경우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며 연간 120

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필뉴스

로도복권 (제 59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	8	13	25	28	37	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255,592,796	1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4,807,623	42
3	5개 숫자 일치					1,315,383	1,750
4	4개 숫자 일치					50,000	79,157
5	3개 숫자 일치					5,000	1,301,802

산단공 호남본부 3번째 투어 기업 '나눔테크'

심장자동제세동기 등 생산 기술력 뛰어난 '強小 기업'

자동제세동기 원천기술을 보유한 나눔테크(대표 최무진)가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 본부의 우수기업투어 3번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업투어 행사는 산단공 호남 본부가 독자적인 홍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언론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광주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클러스터 회원사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업투어와 PR지원 대행 등을 진행한다.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가 주력상품인 자동제세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제공>

지난 2005년 설립된 나눔테크는 광주지역 첨단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이며 자동제세동기(AED)와 골밀도진단기(Bone-Pro), 저주파자극기(QT-MASTER) 등을 생산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2009년 개발한 심장제세동기는 이 회사의 주력상품이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질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전기충격을 주 심장을 소생시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장비로, 최근 출시된 신제품은 환자의 심장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중소기업으로서선 드물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그동안 8건의 특허 출원과 함께 ▲ISO 9001, ▲ISO 13485 등 다수의 해외 규격 인증을 획득,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관련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효천2지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LH 광주전남지역본부 532가구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지난 18일부터 광주 남구 도대동 일원 광주효천2지구 LH천년나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532가구의 공급에 들어갔다.

지하 1층, 지상 13층~20층 7개동, 전용면적 51㎡ 150세대, 59㎡ 382세대 등 총 532세대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와 3베이(방-거실-방), 3.5베이(방-방-거실-방)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며 내 치러림 살다가, 임대기간(10년) 종료 뒤 분양받아 안정적인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대조건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최대 전환시, 51㎡는 보증금 6100만원에 월임대료는 28만원, 59㎡는 보증금 7900만원에 월 임대료는 29만원 정도이다.

효천2지구는 오는 5월 입주가 시작되며 4500여세대가 건설되는 대규모 사업지구로, 진월지구와 효천1지구와 사이에 위치하며 노인건강타운 및 골프장이 바로 인접해 자연·문화 레저시설 등을 끌고올 갖춘 전원형 개발지구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국도1호선과 제2순환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 시설로 광주 도심 및 전남권으로 이동이 쉽고, 자연과 교통, 교육 등 주거환경의 삼박자가 모두 갖춰진 주거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062-653-8199~820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작은 불씨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태워버립니다.
성냥, 라이터는 두고 가고...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하고... 취사 대신 도시락을 즐기고...
꺼진 불도 꼼꼼하게 다시 보고 남은 불씨도 꼭 챙겨보세요.
산불이 사라지면 산림이 살아납니다. 산불이 사라지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산불신고전화 063-620-4620~3

관리하기 힘든 산! 국가(산림청)에서 매입해 드립니다.
(063)620-4631